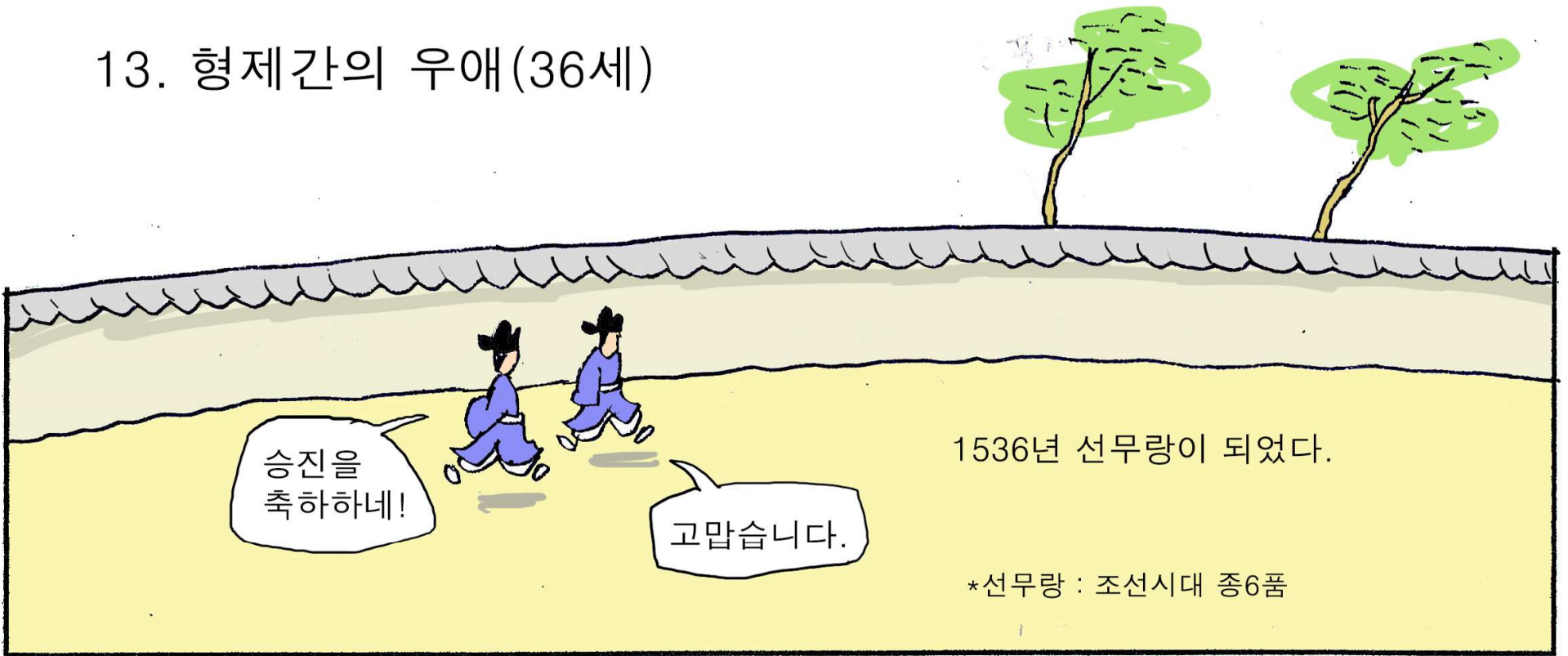


13. 형제간의 우애(36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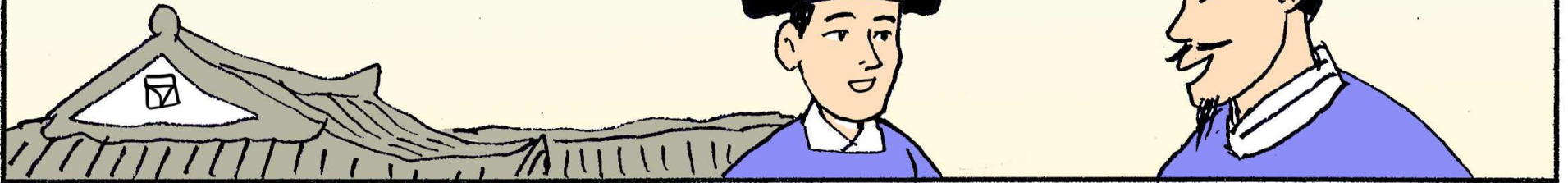


그해 7월이 되었다. 넷째 형 온계는
검상으로 있었는데 휴가를 얻었다.

동생, 자네도
같이 가세.

그러시죠,
형님.

검상檢詳 : 조선시대 의정부에 두었던
정5품 관직.



우리가 함께
고향에 가는게
얼마만입니까?

꽤 됐지
싶네.



서로 일하느라
바빠서 형제 간에
얼굴도 잊어버리
겠어.

그러게 말예요.



우리가 살면 얼마나
살겠습니까?

자네가 무슨 말을
하려는지 알겠어.



기회를 봐서 사직하고
고향에 내려가 같이
여생을 보냅시다.

암, 꼭
그래야지



